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안전 관련 자격 취득 인기

### 지난해 대비 산업안전기사 52.13%·건설안전기사 53.25% ↑

### 올 상반기 광주지역 자격증 취득 분석...제빵·미용 수요도 높아

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광주에서 안전과 관련된 국가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건설현장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사태로 건축도장과 전기공사 등 건설 관련 분야와 창업을 위한 제빵, 피부미용 등 자격증 취득도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올 1~6월 기준 광주지역 국가기술자격 기사와 산업기사, 기능사 등급 자격증 취득자 중 산업안전과 건설 관련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자가 유독 증가한 것

으로 파악됐다. 기사 등급에서는 '전기공사기사'가 취득인원 197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전기공사기사 자격증 취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51명·11위)보다 286.27%나 급증했다.

이어 '정보처리기사' (168명)가 2위를 기록했으나, 전년(286명·1위)보다는 -41.26% 감소했다.

특히 '산업안전기사'는 올해 143명이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작년(94명)보다 52.13% 증가했고, 순위도 4위에서 3위로 올라섰다. 이밖에 '건설안전기사' 역시 전년(77명)보다 53.24% 증가한 118명을

기록해 기존 6위에서 5위로 한 단계 올라섰다.

'산업안전기사'와 '건설안전기사' 등 안전 관련 자격증 취득자가 증가한 것은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해당 법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도중 산업재해가 발생해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책임을 묻고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중대재해법 제4조는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산업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채용이 늘었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취업이 수월하다는 점에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기사 등급에서도 안전과 관련된 자격증인 '위험물산업기사'가 85명으로 전년(73명) 대비 16.44% 증가하며 '사무자동화산업기사' (85명)와 함께 공동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산업안전산업기사' (82명), '전기산업기사' (45명), '기계정비산업기사' (38명) 등 순이었다.

기능사 등급에서는 '지게차운전기능사' (761명), '굴착기운전기능사' (408명), '건축도장기능사' (406명), '한식조리기능사' (358명), '전기기능사' (333명)가 1~5위에 올랐다. 무엇보다 '건축도장기능사'는 전년(286명) 대비 41.96% 증가했고, '전기기능사'도 전년보다 41.10% 늘어나는 등 유독 증가세다 두드러졌다. 순위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으나 미용사(피부)는 204명에서 253명으로 24.02%, 제빵기능사는 200명에서 270명으로 3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로 술과 유흥보다 건강과 자기관리에 관한 주요 생활업종이 인기를 끌면서 피부관리 관련 창업이 증가한 것이 피부미용사 자격증 취득 증가에 영향을 미쳤고, 제빵기능사 역시 카페나 빵집을 창업하려는 젊은 층의 수요가 이어지면서 많은 응시자가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허서혁 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광주에서도 안전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자격취득자도 증가했다"며 "안전의식이 높아지고 안전 관련 인력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관련 자격증에 대한 인기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은행 '무등산수박 살리기' 동참 행사에 동참하며 무등산 수박 총 1000만원을 구입했다. (광주은행 제공)

## 세얼굴

### “지역경제 위해 관세행정 역량 집중”

김용식 제42대 광주본부세관장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통한 수출 지원 등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17일 제42대 광주본부세관장으로 김용식(52) 전 대구본부세관장이 취임했다.

신임 김용식 광주본부세관장은 장성 출신으로 장성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를 마쳤으며, 1996년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김 세관장은 외교통상부 주홍콩총영사관실 관세관과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 관세평가분류원장,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 심사정책국장,



조사감시국장, 통관국장 등 관세청 주요 핵심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김용식 세관장은 “광범위한 서남해안을 관할하는 세관으로서 관세국경 감시를 강화해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물품의 반입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불법·부정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수출입 업무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불편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

## 광주상의, 한글·엑셀·파워포인트 시험 첫 시행

광주상공회의소는 이달부터 신규 민간자격 시험인 '플러스' (한글·엑셀·파워포인트) 시험을 광주상의 1층 국가기술자격 상시시험장에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플러스 시험은 초중학생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응시 가능할 수 있으며, 컴퓨터 문서작업에 기초가 되는 한글과 엑셀, 파워포인트를 활용해 문서 작성과 계산·분석, 발표 자료 제작 등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또 워드프로세서(단일등급), 컴퓨터활용능력시험(2급)보다 난이도가 낮고 합격 기준(100점 만점에 60점)도 평이해 자격증 취득이 비교적 용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필기시험 없

이 필기시험만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 방학 기간을 활용해 단기간 내 자격취득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에게도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문서작성 능력이 중요해지면서 관련 시험이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며 “기존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국가기술자격증이 난이도가 높아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플러스 시험을 통해 단계적으로 활용 능력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광주상의 점정사업팀 전화(062-350-5851~2)로 문의하면 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호남권 혁신제품 전시회’ 오늘까지 DJ센터

기술력으로 혁신 공공조달을 이끄는 혁신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호남권 혁신제품 전시회’가 17~18일 이틀간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지방조달청은 ‘혁신제품 권역별 순회 전시회’ 호남권 행사가 이 기간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고 17일 밝혔다.

혁신제품 전시회는 조달청과 기획재정부,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 주최한다.

전시회에서는 조달청 선정 40개, 기술마켓 선정 18개 등 총 58개 혁신기업의 혁신제품을 선보인다. 이 가운데 호남지역 기업 제품은 모두 9개로, 나주 기업 ㈜유신피플의 기술마켓 선정 제품 ‘가드레일의 지주보강구조’ 등이 포함됐다.

행사장에서는 구매상담회와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상담회, 혁신조달 아카데미 수료식 등 혁신조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부대 행사도 열린다. 구매상담회에는 광주시, 광주도시공사, 여수

광양항만공사 등 호남권 200개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가 참여한다.

광주조달청은 전시회 첫날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6개 기관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전남대학교병원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광주도시공사, 장흥군, 신안군, 무안군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들 기관은 지역기업인 ㈜아이티아이테크놀로지 스마트 병상 헬스케어 시스템, ㈜에코코의 호·소수 등의 작업차 안전을 위한 75마력급 수초제거 제품, 리셋컴퍼니㈜의 태양광패널 무인청소로봇, ㈜세오의 인공지능 기술 적용 센서 융합통합형 무인교통단속시스템, ㈜블루오션테크의 진공유동 방지장치를 구비한 부유체, ㈜엔이알의 통신 및 제어 가능한 블로워팬 모듈이 적용된 공기청정기를 시범 사용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현대차·기아 ‘비상’ ...美 전기차 세금혜택 한국차 모두 제외

###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수혜 대상 전기차 21종으로 줄어 ‘20만대만 혜택’ 한도 삭제...기아 등 후발주자에 불리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변경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수혜 대상이 21종으로 줄어든 가운데 한국 업체 차량이 모두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대차와 기아 등 국내 업체들이 새로운 세액혜택 기준을 당장 충족하기 어려운 만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로이터통신은 16일(현지시간) 미 행정부가 전기차 세액공제 수혜 대상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함에 따라 당장 이날부터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만 올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미 에너지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북미지역에서 최종 조립되는 2022~2023년식 전기차 가운데 한국업체 차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차 아이오닉5, 기

아 EV6는 전량 한국에서 생산되고, 다른 전기차인 코나EV, GV60, 니로EV 등도 한국에서 만들어진다.

에너지부가 연말까지 수혜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제시한 전기차는 아우디, BMW, 포드, 크라이슬러, 루시드, 벤츠 등의 2022~2023년식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21종이다.

현대차 등도 회원사로 참여하는 자동차업계 단체 자동차혁신연합(AAI) 측은 기존 제도하에서 전기차 약 72종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규정 변화로 이 가운데 70%가 혜택을 못 받게 될 것으로 우려한 바 있는데, 실제 유사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현대차는 지난 5월 미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제시해 실제 전기차 생산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차에 한해 중고차는 최대 4000달러(약 524만원), 신차

는 최대 7500달러(약 983만원)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북미에서 차량을 조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년 1월부터는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해야 하는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AI는 내년이 되면 거의 모든 전기차들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중국과의 경쟁 속에 중국산 핵심 광물과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들 혜택을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지만, 한국에서 생산되는 차량도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또한 앞서 2009년 말부터 시행된 미국 전기차 기존 보조금 제도에 따르면 전기차 브랜드별로 20만 대까지만 세액 공제를 제공해왔는데, 이번 법으로 20만대 한도가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기아 등 후발주자가 불리하게 됐다고 CNN비즈니스는 평가했다. 기존 제도에 따르면 테슬라와 제너럴모터스(GM)는 이미 전기차 판매량 20만대를 넘겨 세액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반면 기아 등 후발주자들은 여전히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 광산세무서, 평등산단 입주기업 세정지원 제도 설명회...법인세 공제·감면 제도 홍보

광산세무서는 17일 오전 광주 평등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평등산단 입주기업과 함께하는 중소기업 세정지원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설명회에는 3고(불가·금리·유가)현상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공성원 법인팀장이 강사로 나서 고용증대와 시설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 법에서 정한 세제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공제·감면에 대한 주요 사항을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의 공제·감면에 대한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영세한 지역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에 대해서도 홍보했다.

이중학 광산세무서장은 “지역경제 버팀목으로서 경제성장을 견인해 오고 있는 산단 입주기업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공제·감면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며 “앞으로도 광산세무서는 평등산단에 이어 하남산단 등 관내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설명회를 통해 납세자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세정활동으로 국민의 국세징, 신뢰받는 국세행정의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광주신보, 광주시 경영평가·기관장 평가 A등급

광주신보보존재단은 2022년 광주시 출자·출연 기관 경영평가와 기관장 평가에서 각각 A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광주신보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7년 연속 A등급 이상을 달성하게 됐다.

지난해 광주신보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특별보증을 3차까지 진행하며 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 3무(無) 혜택을 지난 1500억원 규모 보증 지원을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지키기 위해 비대면 보증 시스템을 도입하고 디지털 소외 계층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원·샷’ 보증 서

비스를 시행하기도 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16.47 (-17.05)
↓ 코스닥	827.42 (-7.32)
↑ 금리(국고채 3년)	3.087 (+0.009)
↑ 환율(USD)	1310.30 (+2.20)